

風水의 思考基盤과 生活風水地理

임 동 호*

I. 머리말	Ⅲ. 風水의 새로운 理解와 生活風水地理
Ⅱ. 風水의 思考基盤과 風水地理	理
1. 風水로 본 韓半島의 形勢와 우리 겨레	1. 山과 穴의 理解
2. 風水地理의 形成과 展開	2. 水脈의 影響
3. 風水의 論理와 方法	3. 生活風水地理
	Ⅳ. 맺음말

I. 머리말

인간은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아 가며 살아가고 있다.

땅은 萬物의 어머니요, 消滅하는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땅에서 나고 자라는 만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살피고 관찰하여 땅의 능력을 찾아내고 올바르게 이용해야 하는 것이 道理가 아니겠느냐?

모든 생명의 뿌리가 거기 있고 거기서 나는 것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땅의 생명력은 무한하다고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땅에서 나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땅과 인간과의 관계로서의 풍수지리는 예로부터 조상을 숭배하고 받드는 지극한 孝의 정성과 조상의 墓를 좋은 곳에 모시면 조상과 자손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富貴功名을 누릴 수도 있으며 훌륭한 인물을 낳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어울러 오랜 세월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

우리 겨레에게 風水地理는 조상에게 효도하는 相生의 孝思想이며, 자손들의 번창을 바라면서 조상을 섬기는 민간신앙이 되어 뿌리깊은 우리의 전통 사상으로서 내려오고 있다.

*본학회 정회원, 강원대학교 토지행정학과 교수

이러한 풍수지리에 대하여 어느 한편에서는 그저 迷信이나 雜技, 雜術 정도로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비과학적이라고 하기에는 整然한 論理 및 思想的 體系와 그 기반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본고는 요즈음 전통 사상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풍수도 단순히 墓자리 잡기의 術法으로서가 아닌 우리 겨레와 땅과 관련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환경을 보전함에 있어서 전통 풍수의 사고기반을 이해하고 나아가 생활풍수로서 활용하여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부동산으로서의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良好한 생활환경의 확보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땅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면면히 이어 온 우리의 전통풍수가 깨달음의 풍수로서, 생활풍수지리로서 그 맥을 함께 하고자 하는 데 있다.

Ⅱ. 風水의 思考基盤과 風水地理

땅과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어떤 땅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때로는 운명이 바뀌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이 풍수지리의 출발점이다.

때문에 진정한 풍수지리-바람, 물, 땅의 理致를 터득하면 자연은 알아서 몸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보다 나은 몸을 만들고, 이웃과 화합하고 모든 생명과 연대의식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터의 마련과 다음 생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 우리 겨레의 基層的 思想으로서 그 내용의 聖俗이나 眞假를 막론하고 新羅 以後 깊은 영향을 미친 것임에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¹⁾

1. 風水로 본 韓半島의 形勢와 우리 겨레

가. 韓半島의 形勢

어떤 땅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땅으로 해서 인간 형성이 틀러지기 때문이다.

땅과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어떤 땅에서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모양이 틀러지는 것이다.²⁾

중위도 대륙 동안에 위치한 우리 나라는 세계 최대의 대양 태평양과 세계 최대의 대륙 아시아의 양면에 접하여 삼면이 바다에 둘러 싸여 있는 半島의 땅이다. 水陸 양면에 접하여 남북의 긴 반도의 땅으로서 바다 건너 왼쪽에는 일본열도, 오른쪽에는 중국의 동안, 북쪽에는

1)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92, p.11

2) 박경진, 「정혈풍수십승지리」, 「치국평천지사」, 1995, p.113

만주와 연해주, 남쪽에는 제주도도 자리 잡고 있어서 풍수지리적인 입장에서 거시적으로 보면 이른바 藏風과 得水의 形局을 갖추고 있다.

또 한반도는 그 면적의 67%가 산으로 되어 있는 산악국가이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산을 보며 산과 더불어 살고 있다. 산이 아름답게 되면 곧 국토가 아름답게 되고 산림이 푸르고 기름지게 되면 우리의 삶과 마음도 넉넉해지고 푸짐하게 된다.

지도 위에 그려진 한반도의 모습은, 崑崙山 한 가닥이 대사막 남쪽으로 뻗어 동쪽으로 醫巫 閭山이 되었고, 여기에서 크게 끊어져서 遼東들이 되었다.

들을 지나서는 다시 솟아나, 白頭山이 되었는데 산 정기가 두 강을 끼었고, 뒤쪽으로 뻗은 한 가닥이 朝鮮山脈의 우두머리로 되었다.³⁾

즉, 백두산을 정점으로 하여 개마고원을 형성하고 태백산맥을 반도의 뼈로 하여 서쪽과 서남쪽으로 강남, 적유령, 묘향, 언진, 멸악, 마식령, 광주, 차령, 노령, 소백산맥들이 물의 흐름을 막는 듯하면서도 열어 주어 평야를 이루어 주고 있는 반도의 묘한 모양은 구불구불 구비치며 흐르는 그림같은 산맥에 흑시라도 지루함을 느낄까 염려라도 하듯 곳곳에 명산을 두어 그 정기를 한층 돋우고 있다고 한다.⁴⁾

따라서 풍수서에는 한반도의 氣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개마고원을 거쳐 내려오다가 중간에 여러 산맥으로 분기되어 백두산의 정기가 한반도 곳곳으로 흘러든다고 하며, 氣는 산을 타고 흐른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 땅은 세계의 어느 곳과도 다른 땅이다.

우리 나라의 지세를 나름대로 '仙人'의 형상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호랑이' 모양이라고 하였다.⁵⁾

물형을 선인으로 보았던지, 맹호로 보았던지 이 물형이 조국의 국경으로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시련과 국토의 변형을 거듭하여 형성되었다.

조선에 이르러서야 지리적인 형국은 형성되었으나 지기가 발현되기도 전에 외침에 의해 수난을 당하였고, 해방이 되었다고 해도 심장부분이 쑥쑥 묶여 아픔에 울부짖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어설피게라도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어린이들은 남한은 남한만 그리고, 북한은 북한만을 그리려고는 하지 않는다. 술한 榮辱의 세월을 묵묵히 지내 온 이 땅을 동양에서는 艮(東北)方이라 하여 明堂의 터로서 생명의 힘(氣)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하였다.

땅으로 본다면 땅에서 구석진 자리는 산이다. 그래서 산을 易에서는 艮(≡)이라 하였다. 때문에 산은 氣를 갈무리하려 하며 또한 생명의 기운을 축적하는 곳이다.

또한 전통적 풍수사상의 저변에는 산을 타고 흐르는 기가 모인 곳이 명당이며, 인물은 이러

3) 이중환 저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1995, p.25.

4) 조황수, 명가 풍수지리비전 「혈」, 태성출판사, 1995, p.6.

5) 이중환은 조선의 형세를 노인이 중국을 향하여 搦을 하고 있는 자세라고 하였으며, 일본인 지리학자 小藤은 한반도의 생김새를 토끼에 비유하였다. 최남선은 마치 맹호가 발을 들고 동아대륙을 향하여 나는 듯 뛰는 듯 생기있게 활쫓으며 달려드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한 산의 정기를 받아 태어난다고 생각하였다.

나. 우리 겨레

유추하여 보면 우리 겨레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못 올라가고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 왔을 것이다. 이는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한반도가 끝(極東)이라는 것이다.

한반도는 문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기후와 지형도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곳에 살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다. 예로부터 '자기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밝은 곳을 찾아가던 겨레로서 단순한 생각으로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을 찾으려고 하였을 것이다.

이 좁은 땅에서의 엄청난 변화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머리는 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뚜렷한 계절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고, 농사를 짓더라도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고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생물도 생명력이 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렇듯 우리의 땅은 '氣'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기에 빨리 적응해야 하므로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⁶⁾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종족이 죽고 없어지고 패망을 했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 남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땅은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침범 당해 온 그 역사를 반복하고도 이렇게 고고하게 있는 것이다.

수려한 산천에 의지하여 살게 된 우리 겨레는 일찌기 하늘에 精靈들이 형체가 없는 생명으로 살고 계시고, 땅에는 정기가 있어 스스로 살아 있음은 물론 땅에 의지하는 못 생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精神'을 가지고 대자연의 도움을 받아 가며 더불어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아기도 삼신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육신이 자라고 천지에 가득 찬 氣와 인간들의 정신과 어울려 마음도 자란다고 믿었다.⁷⁾ 산악국으로서 이 좁은 반도국에 많은 인걸들이 태어나 조국을 지키고, 수많은 재난 속에서도 자기의 가족을 지키고 가문의 명예를 살리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의 땅 - 地氣, 땅의 精氣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 민초들의 믿음이다.

六觀 孫錫佑는, "風水地理의 그 玄妙한 도리에 심취하여 때때로 높은 봉우리에 올라 팔방을 관망하니 靑山은 첩첩하여 千變萬化요, 江河는 굽이굽이 大海로 흘러드니 진실로 전세계에 으뜸가는 錦繡江山이로다" 하면서 "이 좋은 江山에 내 몸이 태어났으니 福中에도 大福이요,

6) 박경진, 전계서, p.118.

7) 조황수, 전계서, pp.18-21

慶事중에 큰 경사라, 장차 이 수려하고 장엄한 우리 강산이 精氣를 發하여 온 누리와 모든 인류를 영도하는 宗主國이 될 것이니 이 아니 기뻐쏘나?” 하였다.⁸⁾

우리 겨레에게 한 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時空을 초월해 이루어진 風水地理는 우리 강산에 터잡은 겨레의 맥이 되어 비평이 거듭되면서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이다.

2. 風水地理의 形成과 展開

가. 風水와 風水地理說의 意味

‘風水’란 말은 국어사전(뉴에이스 국어사전, 금성출판사, 1993. p.2037)에서 찾아보면 “음양오행설에 기초하여 민속적으로 지켜 내려오는 地術, 집터, 밋자리의 방위, 지형 등의 좋고 나쁨이 사람의 화복에 절대적 관계를 가진다 함”이라고 하였으며, 다른 국어사전에도 비슷한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희승편 국어대사전(민중서림 제3판, 1994, p.4183)에서 풍수지리는 “풍수지리설준(風水地理)이라고 하였으며, 풍수지리설은 “지형이나 방위의 길흉을 판단하여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데 적당한 장소를 점쳐서 구하는 이론. 음양오행사상에 아버지의 유해를 평안히 모시려는 효도의 사상이 합쳐서 된 것이 풍수설”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사전에서도 거의 같은 뜻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사전]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풀이하고 있으나 근래에 출판된 풍수와 관련하여 출판된 문헌을 보면 유사한 내용이지만 간략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려고 한 흔적이 뚜렷하다.

崔昌祚는 “풍수지리설이란 陰陽論과 五行說을 기반으로 周易의 체계를 주요한 論理構造로 삼는 중국과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地理科學으로, 追吉避凶을 목적으로 삼는 相地技術學이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후에 孝의 관념이나 사머니즘과 결합되어 利己의인 俗信으로 진전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土地觀의 表出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⁹⁾

李益中은 “풍수지리란 사람이 생활하는 자연환경 속에서 양질의 생명에너지(Vital-Energy)를 공급받기 위해, 그러한 생활환경의 터전을 합리적 선택적으로 가려잡는 한 방법이다. 또한 조상에 효도함과 아울러, 그 조상으로부터 양질의 種性因子(혈통)와 還元生命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함이며, 죽은 후에 묻힐, 그러한 조건에 맞는 墓 터를 합리적 선택적으로 가려잡는 방법에 대하여 자연의 질서와 원칙을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⁰⁾

趙黃穗는 “풍수지리는 땅의 이치를 형태로써 터득하여 精氣를 알고 느끼고 함께 하려는 학문도 종교도 아닌 독특한 우리 민족만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산줄기 속에서 산 정기

8) 이한익·김경보, 「혈」, 도서출판 연봉, pp.3-4.

9) 최창조, 전계서, p.32.

10) 이익중, 「길한터 흉한터」, 동학사, 1995, p.17.

의 움직임을 느껴야 하고 몽처진 공에서는 말로써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하였다.¹¹⁾

그러나 아직도 풍수나 풍수지리는 미신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애매모호한 비과학적인 산물로 여기는 사람도 많다.

풍수지리는 인간이 터를 잡고 주거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좋은 곳을 찾고자 하는 생존본능의 노력에서 나온 생활 지혜이자,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나. 風水地理의 由來와 變化

인간이 地表를 占有하여 땅위에 삶을 살아가면서, 즉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은 물론 죽어서도 그들이 생활하는 곳의 '땅과 적응' 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나뉠대로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땅의 이치를 깨달아 '좋은 자리(明堂)'를 차지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땅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 변화하는 지표공간을 주시하면서 그 요인을 바람(風)과 물(水)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를 갖춘 論理가 발전하였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風水說은 고대 중국에서 체계화되어 이론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理論體系를 갖게 된 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기원전 4~5세기경 戰國時代(BC 403~221)의 말기에 풍수적 관념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漢代에 이르러 陰陽說이 도입되면서 風水의 經典이라고 일컬어지는 [青烏經]¹²⁾이 편찬되었다.

청오경 이후 東晉의 葬書를 지은 郭璞, 張子徽 등과 더불어 南北朝時代에는 한층 발전하여 이 방면의 대가가 있었고,¹³⁾ 이 무렵에 陰宅의 이론이 아울러 발전하였다.

이어 唐代에도 青囊經을 지어 風水說의 中始祖로 알려진 楊筠松을 비롯하여 新羅人에게 風水를 가르쳤다고 전하여지는 一行禪師 등 유명한 風水師가 있었다고 하며, 宋, 元, 明代에 이르기까지 잘 알려진 名師가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風水思想이 언제부터 우리 나라에 전래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新羅가 통일 이후 唐과의 문화적 교류가 빈번하던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 풍수사상의 기원은 원래부터 우리 겨레의 좋은 터 잡기를 위한 생활의 지혜와 기술로서의 自生的 風水地理가 신라가 통일 이후에 선종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이론체계의 풍수지리를 받아들인 것이 역사적 사실로 전하고 있다.¹⁴⁾

풍수지리의 역사는 왕조사의 시대구분과는 달리 왕조 말엽에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풍수

11) 조항수, 전계서, pp.28-29.

12) 청오경은 청오자로 흔히 일컬어지는 累敬이라는 사람이 저술하였다고 하는 데 그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현재 풍수에 관한 문헌중 가장 오래 된 것이다.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0, p.68)

13) 예를 들면, 梁의 寶誌, 陶弘景, 隋의 蘇吉 등

14) 최창조, 전계서, pp.45-47.

지리가, 새로운 왕조가 태어나 왕권이 확립되는 시기에 이르면 타락한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풍수지리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배달겨레는 天·地·人의 三才思想을 바탕으로 조상숭배와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 소중하게 지켜 온 고유의 사상 중에서도 오랜 시련의 역사 속에서 위정배의 정권욕과 잦은 재난과 외침의 영향으로 전통의 풍수사상은 변질되고 말았다.

원래의 민중적이고 반 지배이념의 풍수사상은 때로는 지배계층의 호신도구로 전락해 버린 때도 있었고, 일문·일족이나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철저한 반 민중적 위치로 떨어져 버린 때도 있었다.

특히 일제의 민족정기 말살정책에 따라 이 땅은 짓밟히고 나아가 명당 명혈은 쇠말뚝의 아픔을 참아야만 했다.

삶의 터로서 땅을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이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땅의 생기적 측면을 강조한 민속의 기복 신앙으로서의 풍수와 합리적 측면을 강조한 지리로 이분화되어 가면서도 사회적 안정기에는 기복신앙적 잡술로서의 풍수가 생활공간의 환경문제와 아울러 국토와 地氣를 보전하는 데도 이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 風水의 目的과 地氣

이른바 '지기'라는 것이 일정한 경로를 따라 흘러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찾아 감지 할 줄 아는 것, 즉 氣感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기감이 본질이며,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기감만 된다면 풍수의 그토록 난해한 이론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¹⁵⁾

氣는 風水의 出發點이자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풍수의 목적은 땅속에 흘러 다니는 生氣에 感應받음으로써 避凶發福할 수 있는 眞穴을 찾는 데 있다.

땅속의 생기가 가장 충만한 곳이 眞穴이 되고 이 진혈을 찾는 것이 風水의 目的이라고 하면, 生氣가 머문 곳을 찾는 원리가 곧 風水原理라는 論理가 성립된다.

表出된 땅의 선택 - 眞穴을 찾아내는 과정과 방법을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원리는 陰陽五行說을 바탕으로 하여 觀山尋穴을 目力 裁定한다.

관산심혈에 있어서는 전체의 氣象과 形象을 본 후 主山이 될 만한 높은 山頂에 올라가 주변의 산, 바람, 물의 흐름과 방위 등을 관찰한다.

이때 오랜 경험도 이론도 중요하지만, 어떤 느낌 - 氣感이 매우 중요하고 확실하다고 한다.

그러나 기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다만 직관으로써 인식될 뿐이다.

정신과 자연을 잘 조화해 내는 자질이 중요한 것이다.

[風水는 마음이다]

혼돈속에 질서가 있고 질서속에 조화가 있다. 어둠속에 밝음이 있으며, 마음이 즐겁다. 여기에 기가 모이고 精이 쌓인다.

15) 최창조,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 p.77.

氣(Vital Energy)는 세상의 모든 사물을 구성하고 모든 현상을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며 기 초인 것이다.

천지간의 자연현상을 총칭하는 말로써의 천둥, 번개, 비, 바람, 구름, 안개 등은 모두 기의 변화에 기인한다. 기는 음양의 精이며 몸의 활동력의 바탕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에 가득 차 있다.

이 기를 공간적으로 파악하여 땅속에 흐르는 기, 즉 지기의 덕을 얻어 보자는 것이 풍수의 핵심이다.

地氣란 기후의 변화 및 농작물의 생성과정과 관련된 땅 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과 만물을 자라게 하는 생명력, 에너지와 물의 순환 등 땅과 관련된 시스템의 연속적인 기능적 작용의 총체를 의미하는 개념이다.¹⁶⁾

風水術의 갖가지 다양한 방법은 오로지 다름 아닌 地氣 - 生氣를 찾으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생기를 찾을 줄 알면 더 이상 다른 방법을 논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氣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터득하는 것이다.

라. 風水와 陰陽五行說

땅에 의지하여 살던 옛 사람들에게 바람과 물의 조건은 삶의 터를 잡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보다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공간이 더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가능한 좋은 터를 찾아서 생활의 터전으로 삼으려는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한 민간전승적 '相地術'을 하나의 체계있고 기초있는 풍수설로 발전시킨 기반은 음양오행설이다.¹⁷⁾

풍수의 실질내용인 '地母'에 의한 '자손의 번성'이라는 이론적 기저를 준 것이 精氣의 융합, 消長起滅 등 순환에 의해 만물의 생성발전을 설명하려는 '음양오행설'의 영향이다.

음양오행설은 陰陽論과 五行說의 두 이론이 합하여 된 것으로서 고대 중국인들의 우주관상을 보아 온 物活論的 世界觀이다.

음양론은 자연현상에 대한 陰·陽의 서로 상대적인 구별에 의한 형이상학적인 해석이다.

모든 우주의 사물들은 일정한 목적과 법칙을 갖고 있어서 그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으로서 천체의 법칙 속에도 우주의 생명원리인 太極이 있고 太極은 陰陽을 낳고 음양은 다시 분리되어 각 陽과 陰에서 또다시 음양으로 분리되어 四象을 낳고, 사상은 다시 八卦를 낳은 것이라고 한다.

음양은 본래 太極에서 갈라진 두개의 작용이고,¹⁸⁾ 두개의 氣이기 때문에 한 쪽만으로는 우주현상을 발현시킬 수 없다. 때문에 음기나 양기도 단독으로는 조화하지 못하고, 음양의 총화에 의해서 비로소 생기가 생기며 순환적 원리가 존재한다.

16) 최창조, 상계서, pp.79-80.

17) 村山智順(崔吉城 옮김), 「朝鮮의 風水」, 민음사, 1990, p.132.

18) 그러나 때로는 음양론에서는 음양이 총화되어 생긴 것을 태극이라고 함.

즉, 생성발전의 원리와 순환의 원리를 터득하고, 자연현상의 消長起滅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利用厚生은 극히 쉽게 이루어 질 것이다.

陰陽은 천지의 조화라고 칭한다.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공부해 가는 것이며, 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風水에서는 局穴을 결성하는 곳은 그 땅의 형세가 음양의 變合來受를 이루는 곳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山은 陰이며, 水는 陽이다.

산의 변화를 龍'이라 하였고, 변화가 있는 용은 生龍이다. 풍수에서는 땅을 대상으로 한 그 높은 곳을 陰, 낮은 곳을 陽이라 한다.¹⁹⁾ 음양의 원기가 증화화순하는 것이며, 이 화순에 의해 생기가 발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행은 원래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섯가지의 財라는 관념에서 출발해서 자연계를 구성하는 다섯가지 木, 火, 土, 金, 水의 원소적 물질을 상징하고 자연현상을 생산적으로 해석하려고 한 중국의 일관된 민속의식 때문에 풍수에도 음양이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다섯가지 작용이 인식되었다. 오행은 기가 되고 음양이 결부되어 우주현상을 생산적으로 해석하는 음양오행설이 되었던 것이라 한다.

음양론은 자연현상에서 남·녀,·우·열,·강·약,·생·사 등과 같이 대립적 현상의 존재를 생각해 낸 것인데, 오행설은 인생에 필요한 五財와 같은 재료적 관념에서 출발하였다. 재료가 되어야 할 오행이 우·열, 강·약이라는 상대적 관계, 즉 음양의 발전법칙에 따라서 만물이 생긴다는 식으로 음양론과 오행설이 조화되어 발전체계를 이루었다.²⁰⁾

또한 오행의 발전을 음양적으로 관찰해야 오행간에 있어서의 變通自在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설명 없이도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명되어, 오행의 상호관계인 '相生, 相剋'의 두 원리도 음양의 변화법칙에 의해서 상생은 五氣가 만물에 발성하는 陽的, 進動的 발현이며, 상극은 陰的, 靜退的 발현을 말한 것이다.²¹⁾

즉, 풍수가 체계화하면서 생기감응, 음양충화 등의 기초적인 근거를 음양설에서 찾고 있다. 그 생기가 흘러가는 지맥인 산세 등의 형태와 흐름을 오행설의 상생, 상극관계에서 그 吉 凶을 정하려고 한 것과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방위에 의해 길흉의 차가 있다고 한다.

풍수에서 사용하는 방위는 24방위가 있는데, 이 방위의 길흉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중심이 되는 산의 여하에 따라서 달리하는 상대적인 것이다.

음양오행의 적용방법은 광범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음양의 충화와 오행의 상생상극의 두 원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원리만 이해하면 풍수의 이용과 적용방법은 가능한 것이다.

3. 風水의 論理와 方法

19) 이 음양형상관은 하늘과 땅이 서로 마주 보고 있을 때,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기 때문이다.

20) 최길성 옮김, 상계서, pp.146-147.

21) 최길성 옮김, 상계서, pp.160-163.

가. 風水思想의 基本論理와 體系

풍수는 땅을 의지하고 살던 옛 사람들이 보다 좋은 터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발전하여 다른 요소들과 어울려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풍수의 요체는 문자 그대로 바람(風)과 물(水)의 자연조건의 힘에 의존하는 믿음이다.

이념적으로 풍수는 바람, 물을 중심으로 한 자연적 메카니즘에 대한 논리임에 틀림없으나 민속적 차원에서는 자연현상을 믿음화하여 신앙적으로 다른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할 수 있다.²²⁾

전통 풍수서에 있어서 풍수사상의 체계는 대체로 龍, 穴, 砂, 水의 四論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追吉避凶을 추구하는 相地術에 孝의 관념이나 土俗的인 샤머니즘과 결합되어 이기적인 俗信으로 진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風水說의 기본적인 논리는 山, 水, 方位, 사람 등의 조합으로 성립되었고 구체적으로는 看龍, 藏風, 得水, 定穴, 坐向, 形局에 관한 論理로서 성립되어 있다.

이와 같은 풍수사상의 기본논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땅에 대한 이치를 논구한 경험과학적 논리체계와 땅의 地氣가 어떻게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밝히려는 氣感應的 認識體系로 나눈다.²³⁾

풍수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어느 한두가지의 論理를 강조, 중시하기도 하지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분석은 물론 종합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이다.

나. 風水의 構成原理

풍수의 구성은 穴(明堂)을 중심으로 生氣를 찾는 방법으로는, 이른바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坐向法 등의 경험과학적인 방법과 地氣가 어떻게 人事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하는 親子感應論, 所主吉凶論, 形局論 등이 있다.²⁴⁾

1) 經驗科學的 論理

(1) 看龍法

풍수가 땅의 생기를 받자는 것이라면, 생기가 흐르는 통로가 山이며, 표출되는 事象인 山을 풍수에서는 可視的 실체로서 龍이라 한다.²⁵⁾

그 龍脈의 흐름이 좋고 나쁨을 祖山으로부터 穴場까지 살피는 일을 看龍法이라 한다.

龍속에는 감추어진 산의 정기 즉, 地氣가 流行하는 脈이 있어 看龍에서는 龍을 體로, 脈을 龍으로 하여 그것을 찾는다. 龍은 형체가 현저한 것이나 脈은 龍의 속에 숨어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의 없다.

22) 최길성 옮김, 상계서, p.10.

23)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0, pp.177-178.

24) 최창조, 전계서, pp.32-40.

25) 산을 살아있는 생물로 보아 그 종류와 형태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예 : 正龍, 傍龍, 眞龍, 假龍, 貴龍, 賤龍...)

때문에 看龍의 방법은 어렵다. 풍수의 龍이 山을 가리킴은 분명하지만 그 산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과는 다르며, 한치라도 높으면 山이라 할 수 있고 낮으면 水라 일컬을 수 있다.²⁶⁾

그러나 산을 오래 다닌 사람들은 풍수의 술법은 몰라도 산의 정기나 氣를 모으는 산의 느낌으로 알 수 있다고 한다.

산의 모양이나 형세로서 풍수를 몰라도 아는 듯한 것은 조화와 균형속에서도 변화, 생기를 아울러 갖추어 살아 움직이는 듯 생기가 충만하고 그 형상이 수려함은 누구나 느끼고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龍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脈이 통하여야 한다.

龍의 祖宗父母, 귀·천, 장·단, 老·嫩,²⁷⁾ 길·흉, 용결의 성체,²⁸⁾ 용의 생사, 용의 성극, 결혈 등에 관한 간룡법은 풍수의 중요한 부분이지만,²⁹⁾ 大綱이어서 이를 빼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2) 藏風法

明堂 주변의 지세에 관한 풍수이론을 통칭하여 藏風法이라고 한다.

葬經에 의하면, 풍수는 生氣를 타는 것이다. 즉, “葬者乘生氣也”라 하였는데 생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진다. 생기를 타기 위해서는 생기가 멈추고 모여야 한다. 그런데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져 버리고 물에 닿으면 머문다는 것이다. 때문에 풍수의 法術은 “風水之法得水爲上 藏風次之”에 중점을 둔다.

바람은 땅속에서 발생하는 生氣를 흩어버리므로 생기를 포용하고 陰陽의 元氣를 지닌 바람을 잡아 모을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藏風의 필요성이 생긴다.

장풍법은 불어오는 바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어나가는 바람을 막는 방법이다. 결국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바람을 저장한다고 한다.³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장풍이 가능할까?

풍수의 장풍법은 음래의 땅과 양수의 땅으로서 ‘局’을 이루며凸의 형체로 다가오는 용을凹형의 지세로 받고, 혈을凹의 중앙에 정하는 것이 그 대요로 한다.

즉 혈의 사방을 산으로 둘러싸고, 그 중앙 분지에서 음양양원을 沖和하게 하여 생기가 충일 하도록 꾀하려 한다. 이 사방을 둘러 싸는 것을 풍수에서는 ‘砂’라고 하며,³¹⁾ 장풍법의 연구는 우선 이 ‘砂’에서 고찰해 가야 한다. 砂라고 하는 것은 局穴의 주위를 둘러싼 생기의 멈춤, 모

26) 때문에 평탄한 지형이라도 일률적으로 맥이 끊겼다고 할 수 없고, 평지에 혈이 있는 경우도 땅속으로 산의 기맥이 통하였다고 본다.

27) 노늬이라 함은 용이 크고 영성하게 이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을 老龍, 예쁘고 자그마한 것 같은 모습을 嫩이라 한다.

28) 용이 지나는 곳곳의 결절로서, 산줄기가 여기저기에 맥보다 더 용기한 산을 뜻한다. 이때의 산은 하늘에 있는 星曜가 땅에다 그 형체를 이루었다고 하며, 五星과 九曜로 그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29) 특히 來龍의 생사 및 성극, 결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30) 때문에 防風이라 하지 않고 藏風이라 한다.

31) 道誥이 異人으로부터 風水說을 전수받을 때, 산천의 형세를 주로 ‘모래’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砂’라 한다고 전해진다.

임을 촉진하고 그 순화를 돕는 이른바 穴 주위의 전후좌우에 있는 산 및 언덕을 일컫는 말이다.

장풍에는 靑龍, 白虎, 朱雀, 玄武의 四神砂에서 그 대종을 이루고 그의 五星, 九曜, 砂星의 宮, 鬼, 窺 등 술법상으로는 매우 복잡하지만, 吉凶판단은 환경지각적인 영상을 인사에 유추시킨 비교적 연결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穴을 둘러싸고 있는 산세가 둥글고, 단정하고, 밝고, 맑고, 유연하고, 아름답고, 有精하면 吉格이며 그렇지 못하면 凶格이 된다.³²⁾

즉, 이들의 형세가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회합하는 형세가 길하다고 보며 이러한 곳에 生氣가 충만한 明堂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得水法

물은 元氣의 根本이다. 산과의 관계에서 산은 陰이며, 물은 陽이다.³³⁾

풍수에서 형세를 논함에 있어서 山水가 相配해야 陰陽을 이룬다. 산수가 서로 어울리면 음양이 화합하고 음양이 만나면 생기를 이루기 때문에 산수가 서로 만나는 곳을 吉地라 한다.

산은 천리의 근원을 바라보며, 물은 천리의 끝을 본다고 하였다. 산은 높은 것이 좋고, 물은 깊은 것이 좋다. 어지럽지 않게 일어나는 산은 기를 모으고 물도 어지럽지 않게 구비치며 흐르면 기가 멈춘다.

산은 기복을 그 수로 하기 때문에 길흉은 그 高卑, 厚薄, 大小에 따라 정해지나 물은 曲折을 흐름으로 하기 때문에 좋고 나쁨은 그 長短, 深淺, 緩急에 의해 정해진다.

산은 吉位에서 오는 것이 좋으며, 물은 凶方으로 사라지는 것이 좋다. 산이 길위에서 일어나면 복록을 만나게 되고, 물이 흉방으로 가면 복록이 오래 머무른다.

그러나 물이 오가면서 산을 만나지 못하면 산의 길함은 성립되지 않는다. 풍수에서는 그 성국을 이루는 물이 흘러오는 것을 '得', 흘러가는 것을 '破'라고 하며,³⁴⁾ 그 성격은 動的이나 靜的인 것을 요구한다. 때문에 지나가는 물이 보여서는 안된다. 물이 보이면 相樂할 수 없고 음양생기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得水의 관찰은 外水³⁵⁾의 大小, 深淺을 기준으로 하여 땅의 경중을 식별하고, 內水가 나뉘고 모이는 것을 살펴서 땅의 진위를 식별하는 것이라고 地理大典에 있으나, 물의 음양, 물의 종류, 길흉 등도 아울러 살펴야 한다.

산은 陰이고 물은 陽이라 하고, 음은 '體'이고 양은 '用'이기 때문에 길흉화복은 물에서 더

32) 예를 들면, ① 靑龍이 有氣하고 뒷편에 큰 암석이 있으면 큰 인제가 나온다.

② 龍·虎가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兄弟가 不睦한다.

③ 主山 뒤에 窺峯이 보이면 소년 백발이 생긴다.

33) 산은 본래 그 성질이 정이며, 물은 동이다. 그러므로 그 본성으로 산은 음이고, 물은 양이다. 또한 음양론에서는 음이나 양은 홀로 생성하지 못하고 음양이 만나야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

34) 물을 얻는다는 의미로 得이라고 하며, 內水를 처음 본다는 의미로서 '見'이라고도 한다. 물을 헤친다는 의미로 破라 하며, 물이 흘러가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不見'이라고도 한다.

35) 혈을 중심으로 그 원근에 따라 혈에서 먼 것을 외수라고 하며, 가까운 것을 내수라고 한다.

빠르게 나타난다. 또한 물은 용의 혈맥으로서 得水는 못산에 물이 모이는 것이 좋고, 그 물은 산이나 도시의 중앙, 국혈을 향해 구심적으로 충화협심하는 곳에 정기가 있으며, 혈속으로 생기를 모아 왕성하고 충일하게 하고 또한 생기의 응결조화가 완전히 행해지기에 적합한 것이 좋다.

(4) 定穴法

穴이란 풍수에서의 核이 되는 곳으로서, 용맥 중 음양이 합극되고 산수의 정기가 응결된 곳을 말한다.

전술한 看龍은 生氣가 충만한 진룡, 생룡의 선택이며, 藏風과 得水는 성국의 조건이며 結穴의 선행조건이다.

성국내 어디에나 혈이 있는 것이 아니다.³⁶⁾ 극히 작은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찾아내는 일이 풍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朱子の 山陵議狀에 의하면, “소위 定穴의 法이란 針灸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일정한 혈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터럭 끝 만큼의 차이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眞穴이 되기 위해서는 간룡상 진룡, 생룡이어야 하고 장풍, 득수가 모두 術法에 맞아야 한다. 定穴이란 畫龍點睛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혈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생기의 所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生龍은 死龍이 되고 吉局은 “凶局”이 되니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穴形은 천태만상으로 그 모양이 매우 다양하지만 陰陽論에서 말하는 太極, 兩儀, 四象의 관념으로 좁힐 수 있다.³⁷⁾

풍수에서 태극이란 葬者乘生氣에서 말하는 생기이고, 양의는 陰來陽受, 陽來陰受에서의 음양을 말하는데, 그 생긴 모양은 凹凸과 비슷하다.

그런데 陰中에 陽이 있고 陽中에 陰이 있어서 太陽, 少陽, 太陰, 少陰의 四象이 생기게 되는데 그 형체가 穴形에서는 이른바 ‘窩, 鉗, 乳, 突’의 四格이 된다.

穴形은 지형의 凹凸에 의하여, 龍脈이 도뚝하게 凸형으로 튀어나온 모양을 陰이라 하고, 오목하게 凹형으로 들어간 모양을 陽이라 한다. 이는 음양의 원기를 모으는 것은 凹凸형의 것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경험적 유추에서 穴場에 凹형 凸형을 선정하여 음양을 산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凹형이 양이고, 凸형이 음인 까닭에 이 혈장의 凸凹를 음양으로 보고, 음양에는 사상이 있으므로 이에 적합하도록 凹장을 凸형에 속하는 窩와 鉗, 凸장을 凹형에 속하는 乳와 突의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음양의 발전설에 일치시킨다.³⁸⁾

穴形四格은 穴場 자체의 형세에 대한 것이지만 來龍이 入首하는 形局에 관한 것도 吉凶에

36) 穴形의 四形은 四象이라고 하며, 이것이 다시 36形, 82邊, 365體, 389象 등의 변태를 파생하게 되지만 결국 四大格(와, 곁, 유, 돌)에 기본을 두고 있다.

37) 최창조, 전게서, pp.125-126.

38) 최길성 옮김, 전게서, pp.99-100.

관계된다. 이때 入首하는 來龍이 穴場을 일으키는 것을 穴星³⁹⁾이라 한다.

穴星에는 五行에 따라 金星, 木星, 水星, 火星, 土星의 五星이 있고, 正體, 側腦, 平面의 穴星 三丈格이 있다.

穴星에 三丈格이 있어도 正結이라 하지는 못한다. 반드시 이 혈성 사이에는 窩, 鉗, 乳, 突이 있어야 正穴이 되는 것이다.

穴星과 穴形을 알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穴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局을 이루고 있는 穴이라 생각되는 지점 주변의 前後좌우 山勢와 水局을 살펴야 한다.

대체로 山形이 五行의 成體로 합한 것이 표준이니 요는 山勢의 웅장하고 유약함과 산형의 아름답고 악한 것과 또는 星辰이 五星 중에 어떠한 것의 形인가를 살펴 穴場의 窩, 鉗, 乳, 突의 四象을 밝혀 그 穴體의 합격여부와 迎送, 纏護, 朝案, 水口 등을 상세히 살펴 正穴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穴이 합리적으로 眞結의 장소에 占定되어도 좋은 것을 고르고 꺼리는 것은 버려야만 한다.⁴⁰⁾

아울러 穴을 점정해서 얻은 다음에는 그 흙색 및 흙속의 매장물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5) 坐向論

坐向이란 풍수에서 등진 방위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방향이란 뜻으로서 方向의 개념과는 다르다. 즉 坐向은 穴의 뒤쪽 등진 方位를 坐로, 穴의 앞쪽 정면을 向으로 한 穴에서의 위치로 본 方位를 말한다.

어떤 지점, 穴의 특정 좌향은 局地的인 기후현상으로서 태양의 운행에 의한 日照 및 日射效果, 季節의 변화, 風向 등의 물리적 특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과 상상적 의미로 이와 관련된 여건의 관념화된 상태의 방위⁴¹⁾와 이외의 조건으로 성립되는 向⁴²⁾으로 구분할 수 있다.

풍수설에서의 좌향은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이어서 어느 한 가지에 귀속시킬 수 없는 복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어려우나 나침판을 이용한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의 기본이 되는 '向'의 명칭과 상징적 의미와 坐向이 있게 되는 근본은 '羅經, 혹은 佩鐵'이라고 일컫는 나침판에서 찾을 수 있다.

나경의 방위 명칭은 易이 중심인 것은 분명하나 역의 방위해석은 무궁무진하여 종잡을 수 없다. 나경은 天盤, 地盤, 人盤으로 구별하고 다시 64爻, 60甲子를 붙이고 28宿을 배열하여 天度教를 거기에 배당시킴으로써 복잡한 분도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실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24방위도를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39) 풍수에서는 산이 땅과 일체를 이루어 만드는 어떤 모양을 흔히 '星'이라 일컫기 때문이다.

40) 피해야 할 혈장으로서의 조악한 것, 가파른 것, 돌출한 것, 산만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41) 물리적 특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방위를 '絕對向'이라고 부른다면, 북반구 중위도 지방의 주거지는 동남향 내지 남향이 이상적인 절대좌향이 된다

42) 절대향 이외의 조건으로 성립되는 향으로서, '相對向'이라 하며, 이는 大地에서 출발하며 사회성을 반영한다.

풍수좌향론에 있어서는 24방위의 각각에서 고정된 吉凶이 배속되어 있지 않다.

이는 穴 주위 砂에 따라 吉凶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상대적이란 점이 어려운 것이고 그의 해석을 까다롭게 만드는 이유이다.

보다 구체적인 坐向해석은 易과 陰陽五行을 自然之道로서 여하히 지표현상과 연결시키느냐에 주어져야 하며, 또 하나의 지표현상이라는 可視的 實體를 어떻게 吉凶面에서 판단할 것인가에 주어져야 한다 하겠다.⁴³⁾

즉, 調和와 均衡의 자연관으로서 은화유순하고 부드러우며 모나지 않고 부족함이 없어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주위 환경이라고 생각한 옛 사람들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坐向論은 풍수의 본질인 趨吉避凶하자는 것과 占術 등의 運命術 및 易術과 결부되어 吉凶判斷術로 정착되어 버린 듯 하다.

2) 氣感應的 認識

(1) 親子(同氣)感應論

살아있는 사람이 氣가 모이는 땅위에 집을 짓고 살면 땅 밑의 氣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논리이다.

산 사람의 터잡기는 사람은 잠자고 있을 때 자의식이 희박해져, 좋은 땅에 집을 짓고 살면 잠잘 때 자연스럽게 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명혈, 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련을 쌓지 않고도 자연의 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서 산 사람의 터잡기 뿐만이 아니라 부모나 조상의 유해가 받은 기는 자식과 후손, 親子나 同氣에게 전달되어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 氣는 그대로 그 사람의 것이 되지만 죽은 사람의 뼈가 땅속에서 받은 모든 氣는 쓸 곳이 없어서 자신의 분신인 자식 혹은 동기에게 그 기를 보낼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2) 所主吉凶論

名穴, 吉地는 반드시 積善, 積德을 하여야 차지할 수 있다는 풍수사상의 윤리성을 강조한 것이다. 즉 당대 최고의 地師가 잡은 곳이라고 하여도 그 땅을 쓸 사람이 惡行을 했으면 虛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상의 유골로 부귀공명을 구하는 밀천으로 삼아 온갖 짓을 다하여 진혈을 구해본들 그것은 헛 일이라는 것이다.

또 소주길흉론에서는 땅을 쓸 사람의 사주팔자가 그 땅의 오행과 상생되는지도 따진다. 이는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의 만남으로 地人相關說로서, 여기에 天이 합쳐지면 天地人合一의 경지에 이른다.⁴⁴⁾

(3) 形局論

43) 최창조, 전개서, pp.177-178.

44) 이때의 天은 擇日의 문제로 대변이 된다고 한다.

형국론은 地勢를 전반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術法이다.

산의 생긴 모양을 사람, 동물, 식물 등의 물체에 빗대어 본다는 것으로서 이는 宇宙萬物萬象이 有理有氣하며 有形有像하기 때문에 外形物體에는 그 形象에 상응한 氣象과 氣運이 내재해 있다고 보는 관념을 원리로 하고 있다.

즉, 萬物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氣의 차이 때문인 것이고 이 氣의 象이 形으로 나타나는 만큼 形으로 物의 元氣를 알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形局論으로 발전한 것이다.

산의 형태를 미루어 類型을 분류하고 그로써 形局을 論하는 데 있어서 비록 五星에 의하여 大觀하지만 주위의 각 산들과 결부되어 이루어질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유형을 낳게 된다.

그러나 五星이 즉 形局인 것은 아니지만, 形局은 五星에 의하여 그 모습에 따라 각기 動物, 植物, 物件, 文字 및 人物 등의 類型으로 분류하여 주위의 각 산들과 결부되어 이루어질 수 없이 많은 종류의 類型을 파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⁴⁵⁾

형국론은 풍수를 잘 모르는 사람도 때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산의 모습이나 지세를 보는 입장에 따라 달리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踏山하며 吉地를 相占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 吉凶을 판별할 수 있는 어떤 類型分類의 필요성이 있다.

Ⅲ. 風水의 새로운 理解와 生活風水地理

풍수지리를 알고 보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응용할 분야가 많아 흥미롭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진정한 풍수지리를 깨달으면 눈에 보이는 이치를 깨닫게 된다고도 한다. 또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받드는 '孝' 사상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자손의 번창을 바라는 희생의 뿌리사상이다.

풍수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산의 형상만을 보아서 吉凶을 논한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만 보는 것과 같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인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풍수에서 山은 陰이요, 水는 陽이다. 무릇 山水가 相配해야 음양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陰은 體常을 道로 하고 陽은 變化를 주로 하기 때문에 吉凶禍福은 물(水)이 더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때문에 올바른 생활풍수는 山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45) 박경진(전게서, pp.224-235)은 대략 225종으로 분류하였다.

1. 山과 穴의 理解

가. 山, 山精氣

우리는 산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넓은 평야나 광활한 초원이 없는 땅, 한반도에 정착한 우리겨레는 산은 누구에게나 삶의 보금자리이며, 죽음의 안식처가 될 수 밖에 없다.

산은 곧 마음의 고향이다.

우리 선조들은 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더욱 산과 물이 어울린 곳은 선비들의 고향이요 이상향이였다. 또한 '풍수지리' 하면 산의 생김을 보는 것과 산의 모습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산 모양에 집착하여 결과에 치중하고 원인과 과정을 무시하게 되어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산에 갖가지 모양이 생기는 것은 주로 바람과 물에 의해서 파이고 깎여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고, 그곳에 지나가는 바람과 물의 성질을 알 수 있는 것이다.⁴⁶⁾

이런 관점을 가져야 비로소 산의 모양과 그 생김을 보고 풍수지리의 구성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산이 있기에 산을 거닐며 깨우쳐야 한다.

산은 바람이나 물을 막아 줄 뿐만 아니라, 그 토질도 일반 흙과는 다르므로 그 氣도 다르다. 때문에 산은 그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산 전체를 우선 보고 산줄기와 정기가 나는 곳을 찾아야 한다.

산은 脈으로 이어져 있으나 각기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 '主山'⁴⁷⁾을 놓고 산줄기들이 뻗치는데 그 속에서 조화를 찾아야 한다.

산줄기들은 높음과 낮음, 넓음과 좁음, 바르거나 비틀림, 깨끗하거나 거칠음 등 헤아리기 어렵게 많은 형태를 하고 있지만, 조화와 균형과 안정된 그러면서도 변화된 생기를 갖춘 모양의 산 속에 흐르는 氣를 따라 혈을 찾는 것이다.⁴⁸⁾

산은 살아 있다. 그래서 산에 가면 생명의 활기가 생기는 것이다. 또 산에 오르다 보면 어떤 때는 산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산을 형성하고 있는 흙, 바위, 돌무더기 등은 온갖 것들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산에 동화되면서 산을 자신 속으로 맞이하게 되고 이해하는 정도만큼만 산은 고향처럼 포근하게 맞이해 준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모든 산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산에는 각종 山氣와 산의 정기가 있다.

산마다 정기 나는 자리가 있고 그 곳의 정기를 받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한 것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찾을 수 있다.

46) 박경진, 전계서, pp.215-216.

47) 여기서 主山이란 인근에서 가장 어른스럽고 중심이 되는 산을 뜻한다.

48) 조황수, 전계서, pp.38-39.

물론 풍수에 눈을 뜨면 정기 나는 자리를 찾기가 어렵지 않다. 먼저 사랑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산에는 아버지 같은 산도 있고 어머니 같은 산도 있다. 그리고 애인 같은 산, 친구 같은 산, 성자 같은 산도 있다. 그러므로 산을 인격화해서 만나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의 기본자세이다. 따라서 산에 가서 산의 정기를 받고 산기를 받아서 더욱 건강해지고 지혜롭고 사랑이 커지는 사람이 된다면 산 역시 좋아할 것이다. 산을 정복하러 다니는 사람을 산이 불 때 너무 웃기는 것이다.

산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맞이해 준다. 초연하게 언제나 우리를 맞이한다. 산은 항상 살아서, 살고 싶어하는 모든 생명에게 생기를 넣어 주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한다.

산과 사람이 상부상조하면서 交感을 하는 것이다.⁴⁹⁾ 산에 오르다 보면 산의 정기를 느낀다. 산의 정기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각 산의 성질 및 모양새 그리고 느낌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게 대처해야 한다. 山勢는 脈을 이루어야 한다. 氣를 품은 龍이 달려오다가 멈출 때 기는 모이게 되고 陽과 陰은 부드럽게 조화된다. 산의 형세가 粗惡하다면 기가 사납고, 산의 맥이 홀로 외롭게 뻗은 상태라면 기가 미약한 것이다. 즉 기는 형세에 의하여 모이게 되므로 石山, 斷山, 過山, 獨山, 童山은 기가 모일 수 없는 곳이므로 피해야 한다.⁵⁰⁾ 오늘의 풍수지리는 글자 타령에 얽매어서도 안되고 산을 놓고 말장난을 하여서는 더욱 안된다. 더욱 더 산 앞에서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

땅을 사랑하게 되면 生氣가 넘치는 땅임을 믿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산의 정기와 사람의 정신이 하나가 되어 소망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 穴과 明堂

明堂은 穴앞의 넓은 마당을 뜻하고, 穴에는 生氣가 솟구치지만 명당은 생기가 숨어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혈이라는 말 대신 명당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穴을 찾을 때는 주산에서부터 산의 정기를 따라야 한다.

풍수지리의 요체는 혈이다. 혈을 찾는 과정이고, 혈에서 주위를 판단하는 이론인 것이다.

風水圖도 혈을 중심으로 주위의 산과 산줄기들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도 한다. 혈에 얼마만한 정기를 넣어 주며, 얼마만큼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는가를 감지하고 주위의 산과 산세 및 물의 흐름 등을 보고 혈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풍수지리인 것이다.⁵¹⁾

혈이란 인체의 經穴과 같은 것이므로, 생기가 응결하는 혈을 찾지 못하고 棺을 다른 곳에 내리면 生龍은 死龍으로 변하고 吉局은 凶局으로 바뀌어 버릴 우려가 있다.

음양의 기가 응집하는 것은 聚火滴水의 이치로 성국의 대소 여하에 구애 없이, 氣를 집중하는 곳은 혈, 그 일점 이외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맥의 혈이란 것은 그 성국의 형세 여하

49) 박경진 · 전계서, pp.220-223.

50) 이한익 · 김경보, 전계서, p.213.

51) 조황수, 전계서, pp.65-66.

에 따라 結處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定穴에서는 우선 혈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살핀 후 入首가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전후좌우의 명당을 둘러보면서 結氣에 장애를 일으킬 것이 있는지를 규명해야만 한다.⁵²⁾

패철을 놓고 이론을 따지기보다는 주위 산천의 순용이다.

산의 정기들이 조화와 균형과 안정 속에서 만들어 낸 것이 穴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와 생기를 찾아야 한다.

혈이란 사람으로 말하면 생명을 존속시키는 거룩한 곳이라서 함부로 정하여서도 안된다. 혈은 때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자연을 사랑했던 마음과 산의 이치에 맞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보는 관점과 자리 정함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나를 지켜 주는 자리가 곧 좋은 자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左靑龍, 右白虎를 보면 하나는 나의 왼손이 되고, 또 오른손이 되어 나를 지켜 줄 때만 明堂이 되는 것이다.

즉, 右白虎는 陽으로서 西北風인 陰을 막고, 左靑龍은 陰으로서 東南風인 陽을 끌어당기어 〈藏風〉 사용하자는 것이다.⁵³⁾

아울러 주위환경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는 地勢의 영향을 받아 정신을 만들고 육체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自我에까지 연결되어 모든 것이 다 같이 통하는 것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하면 스스로 明堂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과 지혜로서, 보이는 결과를 보고 그 원인과 과정을 깨닫고, 그 깨닫는 방법을 알려주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전통의 풍수를 이해하고 생활풍수로 가는 마음의 자세인 것이다.

2. 水脈의 影響

땅속에 있는 물은 일정한 깊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받고 있으며, 또한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성분도 거의 일정하다. 그리고 폭이 좁은 지층을 따라 脈狀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여 이를 '水脈'이라고 한다.⁵⁴⁾

아울러 자연의 법칙에 의하여 물은 순환하고 흐르게 되어 있다. 이는 모든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의 변화에 따르는 어떤 [波]가 형성되어 나온다고 한다. 물론 이때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어떤 자극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수맥에서 나오는 波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밝혀 내지는 못하였지만 일정한 때로

52) 최길성 옮김, 전게서, pp.98-99.

53) 박경진, 전게서, pp.147-148.

54) 양종천, 「수맥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대광출판사, 1993, p.47.

는 강력한 힘(에너지, 氣)를 가지고 있어 주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⁵⁵⁾

물론 인체에도 수시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조금씩 수맥 위에 있을 때나 혹은 어느 정도까지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오래 있을 경우에는 서서히 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인간의 뇌는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일정한 힘과 압력에 의하여 기능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수맥파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⁶⁾

수맥은 수풀이나 수목, 잔디 등 식물뿐만 아니라 야생이나 방목 상태인 동물은 물론 인공적인 축조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맥은 의지가 없거나 약한 상태의 초목이나 숲, 잠을 자거나 몸이 아파 의식이 불분명한 인간을 비롯한 동물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⁵⁷⁾ 이러한 수맥으로 인한 피해가 단시일 내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수맥파를 두려워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 피해의 개인차가 나는데다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수맥에 의한 피해임을 알지 못하고 증상도 개인마다 서로 다르므로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

지하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수맥이 있는 곳은 좋은 자리가 틀림없지만 墓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다 더 나쁜 터는 없다.

근래 수맥을 무시하고 명당(穴)을 논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기존의 명당 개념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반드시 수맥을 피하는 것이 우선 조건이다. 문제는 수맥의 엄청난 잠재적인 힘(破壞力)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는 없다. 얼마든지 수맥을 탐지할 수 있으며,⁵⁸⁾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다.⁵⁹⁾

다만 알면서 '설마 그럴리아' 하면서 무시하거나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맥은 우리 인간의 혈관처럼 지하에 거미줄 같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 필요로 하는 땅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수맥의 자괴현상은 오랜 시간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맥부터 탐사해 보아야 한다.

3. 生活 風水地理

길을 가다 잠시 쉬어 가는 곳도 아무 곳에서나 쉬어 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공간이 다 같

55) 이 힘은 건물을 파괴하기도, 수목을 죽게도 하며 인체에도 영향을 준다. 이는 수맥의 물줄기를 공급받기 위한 자체운동으로서의 필연적인 自壞現象이라고 한다.

56) 이대우, 「수맥은 과학이다」, 대광출판사, 1994, pp.90-91.

57) 이병조, 「수맥을 알면 명당이 보인다」, 대광출판사, 1993, p.156.

58)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전기저항측정법, 지진계에 의한 방법, 중력측정, 자력측정, 온도탐사 및 전파탐지법을 응용한 '와디'라는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인공위성에서 지하수를 측정하지만 이는 시간과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 비효율적이다. 간단한 도구 - 추, 나무가지, 철사 등을 이용하면 손쉽게도 빠르게 탐지할 수 있으나 수련과 경험이 필요하다. 또 손의 기로서, 신체의 느낌으로서, 주변 환경을 보고 판단하거나 명상에 의하여 알 수도 있다.

59) 수맥을 알면 피하는 것이 좋고, 차단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맥이 흐르는 바닥에 銅版(두께 0.2mm 이상)을 틈새 없이 깔아 놓는 것이 좋다.

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이 좋은 자리이고, 나쁜 곳인가?

그러나 세상에 좋은 땅, 나쁜 땅이 처음부터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쓰임새에 맞는 땅이면 되지 않겠느냐.

전통의 풍수도, 명당의 개념도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토는 錦繡江山이라고는 하지만, 인구에 비하여 너무나 협소하고, 기후, 지형 등 환경의 변화도 크다.

이러한 풍토 위의 생활에서 터득한 체험과 이론에 의하여 형성된 풍수지리는 그동안 우리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可居地로서 살 만한 곳에 관하여는, 李重煥은 [卜居總論]에서 “대저 살 터를 잡는데는 첫째, 地理가 좋아야 하고, 다음 生利가 좋아야 하며, 다음이 人心이 좋아야 하고, 또한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라 하였으며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더라고 하였다.⁶⁰⁾

또 살기 좋은 곳이라도 陽宅에 있어서는 [대문, 안방, 부엌]이 조화있게 어울려야만 좋은 집, 좋은 터라고 하였다.⁶¹⁾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내부의 여러 종류의 공간들도 용도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르지만, [잠자는]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

잠은 휴식을 위하여서도 필요하나 잠자는 시간이 바로 氣의 충전 시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의 내부에서 [안방]은 주인의 휴식 공간이며 잠자는 곳 일 뿐만 아니라 生氣의 충전 장소이다. 따라서 안방은 氣가 가장 많이 모이는 건물의 중심부에 자리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풍수지리는 복잡하고 난해한 원리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그 논리와 방법은 찾을 수 있다. 좋은 터란 사람에게 유익한 氣가 다른 곳보다는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러한 明堂(穴)을 찾기 위하여 전술한 논리와 방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연 공간 - 地勢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 산물방위 등을 살핀 후 그 땅의 성질과 쓰임새가 주위 경관과 어울려 조화와 균형을 이룬 곳이면 된다.

산 사람이 쉬어야 할 곳이 있고, 起居하기에 적합한 곳이 있다. 비록 죽은 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자리는 있는 것이다.

땅의 기운이 살아 있다는 곳 - 明堂(穴)의 뒷자리는 우선은 산의 능선이 아닌 평지로서, 돌이 없는 곳으로 물이 나지 않고, 물을 부어도 고이지 않으며 스며들어 갈 수 있는 토질의 생 땅이면 된다.

住居와 건물은 탄탄한 垆地위에 햇빛·햇볕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집안에서 달의 움직임도 바라볼 수 있는 南向, 무한한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넓은 하늘을 맞이하려는 背山臨水의 이론은 살아 있는 이론이다.⁶²⁾

60) 이익성 역, 전계서, p.121.

61) 이를 三要라 하고, 바깥 기운은 대문에서 받아들이고, 부엌에서 온기를 발생시켜 안방에 머무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62) 그러나 배산임수는 지세에 따라 배치하는 방법으로 남향 위주의 배치 방법과는 다르다.

풍수지리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空間學]으로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으로서의 바람<風>과 물<水>이 인간 생존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식물들이 토양이나 기후 등의 자연적 공간 조건에 따라 그 생육 및 생태가 달라지듯이 인간도 공간의 성질에 의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생명력은 모두 자연 공간의 생김새, 자리<터>, 시간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⁶³⁾

때문에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공간의 변화로 말미암아 풍수지리의 이론도 새로운 생활 풍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땅은 어디까지 우리의 삶의 공간에 있어야 한다. 한정된 도시 - 계획된 국토 공간에 있어서 더 이상 죽음의 공간을 운위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좋은 집, 명당이란 우선은 주위의 경관과 조화되고 균형이 이루어진 곳으로서 재해의 위험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되어 여유 있는 마음 자세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면 좋다.

다음은 도로나 교통편이 편리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으며 이웃은 물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좋아야 한다.

경제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수맥이 흐르지 않고, 온 가족이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다.

물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도시의 주거 공간에서는 어렵고 힘들다. 좁은 실내 공간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장식과 합리적인 가구의 배치로 공간을 활용하고 청결을 유지하면 된다.

실내공간의 水脈은 탐사하여, 수맥을 피하거나 막아야 한다. 최소한 방안에서 잠자리의 위치라도 바뀌거나 가전제품의 위치나 방향을 옮겨 놓으면 된다. 즉,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IV. 맺음말

한 사람의 삶의 터나 뒷자리 잡기부터 國都의 풍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에 이르기까지 풍수지리는 동양적인 생활철학으로서, 물이 좋고 산세가 뛰어난 따듯한 방위를 가려서 살아 보자는 발상에서 나온 自然觀이며 土地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풍수는 내 조상이 없이는 내가 나올수 없으며 또한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내 조상도 없다는 우리 겨레가 면면히 이어 온 전통의 孝思想의 뿌리이며, 믿음이며 생활 철학이다.

明堂의 터에 살거나 吉穴에 조상의 體魄이 깃들이면 편안한 안식이 주어지고, 복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生氣가 서려 있는 땅, 이른바 明堂, 吉穴을 찾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조상의 뒷자리는 물론 집터 하나 풍수의 법식에 맞게 잡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祖孫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孝의 사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살아 있는 사

63) 이대우, 전계서, pp.210-211.

람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참된 사람이 되는 것이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는 땅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 온 조상과 땅에 애착을 갖고, 서로 돕고 지혜롭게 생활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여 좋은 환경을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처럼 땅은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터전이며, 죽어서 묻혀 영면하는 곳이다. 때문에 땅은 단순히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생명이 있어 그 精氣로 인간에게 魂을 불어넣어 주는 生命의 母體요, 肉身의 故鄉이기도 하다.

땅은 단순히 시신을 묻고 나서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잘 되게도 하고 때로는 못 되게도 한다.

인간 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자연인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좋은 땅, 生氣를 希求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사고와 사상이 변화되듯이 풍수에 대한 생각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진정 좋은 땅이란 人倫을 지켜 살아 나가는 사람들의 터전이다. 아울러 좋은 땅을 바라는 人間的 本能을 되찾아 地氣를 얻을 수 있으면 된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끼며 國土를 가꾸고 보전하려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

〈참고문헌〉

1. 강영수, 「풍수로 보는 터 잡기」, 예문당, 1994.
2. 박경진, 「定穴風水十勝地理」, 치국평천지사, 1995.
3. 申坪(譯), 「地理五訣」, 동학사, 1994.
4. 梁鐘天, 「수맥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대광출판사, 1993.
5. 어윤형·전창선, 「오행은 필까?」, 세기, 1995.
6. 오상익(주해), 「장경」, 동학사, 1994.
7. 吳相益, 「역학 돋보기」, 동학사, 1995.
8. 柳道鈺, 「黃土의 神祕」, 행림출판, 1995.
9. 李秉祚, 「수맥을 알면 명당·건강이 보인다」, 대광출판사, 1993.
10. _____, 「수맥의 모든 것, 한나라」, 1995.
11. 李益中, 「길한 터 흉한 터」, 동학사, 1995.
12. 이중환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1995.
13. 이한의 김경보, 「혈」, 도서출판 연봉, 1995.
14. 임용승, 「수맥과 풍수」, 유림문화사, 1987.
15. 임준, 「좋은 땅 좋은 집」, 한국자료정보사, 1992.
16. 전창선·어윤형, 「음양이 뭐지?」, 세기, 1994.
17. 趙黃穗, 「名家風水地理祕傳 穴」, 泰成出版社, 1995.
18. 朱廣錫, 「풍수지리 德山祕訣」, 한국지리문화사, 1990.
19. 村山知順(최길성 옮김), 「朝鮮의 風水」, 민음사, 1990.
20. 崔於中, 「현장풍수」, 동학사, 1992.
21. 최정호, 「산과 한국인의 삶」, 나남, 1993.
22. 최창조,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 1992.
23.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합인가」, 서해문집, 1992.
24. 최창조, 「터 잡기의 예술」, 민음사, 1992.
25.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92.
26. 한국문화역사 지리학회 편,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1993.
27. 허재수, 「재미있는 氣와 道의 세계」, 동학사, 1993.